



## 곡성멜론, 달콤한 맛으로

### 수도권 소비자 유혹한다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서 내달 14일까지 판촉 행사 진행

곡성군이 대표 소득 작물인 곡성 멜론 판촉행사를 14일부터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수도권 하나로클럽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되는 판촉활동을 통해 곡성멜론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곡성군은 최첨단 농산물 신자유통센터에서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사용해 신별한 최고 품질의 곡성멜론을 선보인다. 또한 곡성농협의 관리 하에 계약재배로 생산된 재품들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곡성멜론 포토존이 운영된다. SNS를 통해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즐겁게 만들고, 곡성 멜론과 농촌융복합산업을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다. 특히

7월 6일 15시부터는 유근기 곡성군수가 판촉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유

군수는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홍보

하고 시식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곡성군 담당자는 “2019년 곡성멜론 첫 출하를 계기로 최고품질의 곡성멜론을 선보여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달콤한 여름을 선물하겠다.”라고 홍보의지를 보였다.

곡성=김광희 기자

### 담양군, 희망 귀농·귀촌 시설원예반 교육 개강



해당되는 시설원예반의 과정을 편성해 떨기 수경재배기술 및 6차 산업화, 시설고추 및 토마토 시설재배, 포도시설재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활용기술 등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예비귀농인은 “귀농을 흔자 준비하면서 막막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교육은 예년과 달리 기초영농반과 영농실습반, 시설원예반으로 교육 과정을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진행한 기초영농반과 영농실습반에는 총 46명의 예비농민이 참여해 농업인으로의 역량을 강화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개강식에 이어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보 소장을 초빙해 시설원예 현황 및 재배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40시간에 걸쳐 우리군 주요재배작목에

담양군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영농정착교육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담양에 정착하고 싶은 예비

귀농·귀촌인 총 50명을 대상으로,

### “답답한 민원 이동신문고에 신청하세요”

영암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영암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오는 20일 군청 3층 도선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에는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한다. 또 현장

에서 당사자를 중재해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

군민 누구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처분 관계 고충 또는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행정·문화·교육 ▲사

회·복지 ▲고용·노동 ▲생활·법률 ▲산업·농림·환경 ▲지적 ▲소비자 피해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경찰 ▲공익·부패신고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운영 당일 군청을 방문하여 원하는 분야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그늘막 아래서 무더위·햇볕 피하세요”

여주시, 그늘막 73개 추가 총 111개 설치



여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그늘막 73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7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민 왕래가 많고 그늘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그늘막을 설치했다. 색상은 해양관광도시에 어울리는 파란색으로 했다.

앞으로 그늘막을 접고 펼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영조물 배상보험도 기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여주시 그늘막은 총 111개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그늘막 속 온도는 바깥보다 2~3°C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 흥미가 높은 그늘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본격 시작

내일부터 32개 마을 순회 진행

화순군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오는 18일 한천면 한계2구 마을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32차례 진행한다.

순회 농기계 수리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4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13개 읍·면 32개 마을에서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진행한다. 1만 원 이

하 소모품은 무상 수리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군은 순회 수리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농기계 수리 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사용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순회 수리와 교육에서는 자가 수리 능력을 키우고 읍·면 농

업인상당소장이 참여해 고추·벼 등 해당 지역 주요 작목에 대한 영농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고 제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순회 수리와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흥군, 어린이·노인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총력’



확보해 장흥초, 희진명덕초, 용산북지타운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가 미비한 총 10곳을 조사해 순차적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노인이 보행할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 미끄럼방지포장, 보호구역 표지판, 휠스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장흥군이 정비에 나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18곳, 노인보호구역 3

곳 총 21곳이다.

오는 20일 준공 예정인 장흥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을 끝으로 모든 보호구역 기본정비를 마치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송호빈 기자

### 무안군,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무안군은 ‘제28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무안황토갯벌축제와 연계하여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지난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무안군 주관으로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등 6개 기관과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주무대, 보자이크 광장, 체험부스·홍보부스, 항로음식

방교육 및 흥보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무안군은 축제장을 찾는 관객 및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흥보를 실시하고 흥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무대, 보자이크 광장, 체험부스·홍보부스, 항로음식

관, 체험장 등의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무안군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장은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관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로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